

7월 첫번째 주 그룹큐티나눔

주제로 향하는 길

시편 1:1-6



높이가 무려 100미터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Sequoia)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 중 하나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거목의 뿌리가 생각보다 아주 얇게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나무는 수천 년의 거센 폭풍우를 견디며 거대한 몸집을 지탱해 온 것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연대’에 있습니다. 레드우드는 홀로 깊이 뿌리내리는 대신, 뿌리를 옆으로 넓게 뻗어 이웃한 나무들의 뿌리와 단단히 하나로 엮힙니다.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도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기에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의인의 공동체가 그토록 복되고 강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복 있는 사람은 죄인과 연대하지 않습니다(1-2절).

1)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1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시편 1:1은 복 있는 사람이 멀리해야 할 행동을 ‘걷다’(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점진적인 동사 변화를 통해 묘사한다. 이는 죄가 인간의 삶에 어떻게 은밀히 침투하여 견고하게 뿌리 내리는지를 탁월하게 보여 준다. 처음에는 단순히 악인의 ‘꾀’(생각)를 수용하며 함께 걷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그들의 ‘길’에 익숙해져 멈추어 서게 되고, 결국에는 오만함이라는 ‘자리’에 깊이 정착하게 된다는 경고다. 시인은 죄가 일회적인 유혹을 넘어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고착되는 치명적인 과정을 날카롭게 통찰한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죄의 영향력이 습관으로 굳어지기 전에 그 연결고리를 단호히 끊어 내는 거룩한 구별됨에서 시작한다.

2) 복 있는 사람이 즐겨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2절)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시인이 노래하는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곧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같은 신앙적 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주야’(晝夜)는 흔히 ‘항상’이라는 시간적 연속성으로 이해하지만, 이를 ‘밝은 낮’과 ‘어두운 밤’이라는 인생의 계절적 대조로 바라보면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해진다. 지구가 자전하며 낮과 밤이 반복되듯, 우리 인생에도 기쁨이 충만한 시간과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간이 교차하기 마련이다. 흔히 평탄한 낮의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기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가장 깊이 새겨지는 계기는 칠흑 같은 ‘밤의 시간’이다. 삶의 가장 힘겨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갈망하며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야말로, 환경에 매이지 않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나눔 1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멀리 떼어놓아야 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곁에 두려 애써야 합니다. 요즘 나의 하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이나 ‘물건’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다릅니다(3-6절).

1) 시인은 의인을 무엇에 비유합니까?(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

팔레스타인은 강수량이 적어 물이 매우 귀한 지역이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우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을 상징했다면, 사람이 직접 판 ‘웅덩이’는 한계가 있는 인간의 수고를 의미한다. 시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묘사했다. 따라서 시냇가

에 심긴 나무는 가뭄과 같은 환경 변화에 휘둘리지 않는다. 생명의 근원인 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에, 시절을 좇아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유지한다. 결국 의인
의 형통이란 내 능력이 아니라,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다.

2) 악인은 무엇에 비유됩니까?(4절)

바람에 나는 겨

시인은 악인의 본질을 ‘바람에 나는 겨’로 묘사한다. 고대 농경 문화에서 키질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
내는 풍경은 누구나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일상적인 모습이였다. 이 표현은 청중에게 악인의 운명을
직관적인 시각적 이미지로 전달한다. 겨는 거창한 폭풍이 아니라 키질로 발생하는 아주 작은 바람에도 속절
없이 흩어지는 ‘존재의 가벼움’을 상징한다. 시인은 이 비유를 통해 세상에서 제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권세
를 가진 악인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바람 앞에서는 힘없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겉모습은 화려할지 모르나 생명의 알맹이가 없는 악인의
실체를 꼬집는 탁월한 비유다.

3) 악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어디입니까?(5절)

의인들의 모임

시인은 앞서 제시한 비유들을 하나로 연결하며 심판의 필연성을 강조한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율법)에서 생명수를 충분히 공급받아 영적인 무게감을 지닌 존재다. 반면, 악인은 말씀과 무
관하게 살아가기에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흩어지는 겨와 같이 가볍기 그지없다. 세상 속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살아가는 듯 보이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심판의 바람 앞에서는 오직 은혜의 수분을 머금어 견고해
진 의인들만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된다. 악인이 의인의 모임에 끝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은 세상의 자원은 풍족히 누렸을지언정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물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메마
르고 가벼운 영혼은 결국 심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흩어지고 만다.

나눔 2 요즘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행이나 눈앞의 이익 앞에서 ‘바람에 나는 겨’
처럼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견고한 ‘나무’처럼 든든히 서 있는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정직하게 나눠 봅시다.

나눔 3 의인은 홀로 서 있는 외로운 나무가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겨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
는 ‘의인들의 모임’(5절)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메마르지 않는 ‘생명의 시냇가’가 되기 위해, 이번 주 지체
들에게 건넬 수 있는 따뜻한 격려나 구체적인 섬김이 있다면 함께 나눠 봅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공동체 -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뿌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는 연대의 장이 되게 하소서.